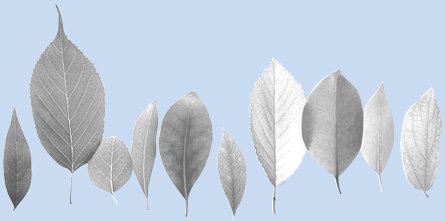
白頭大幹



백두대간, 그 이름을 찾아서 백두대간, 그 이름을 찾아서 백두대간, 그 이름을 찾아서 백두대간, 그 이름을 찾아서

1. 이 땅에 천년을 흘러 ● 78

2. 큰 이름, 山 ● 82
   산에 든다 / 山에 제를 올리다

3. 산 중의 산, 백두산 ● 88

4. 이 땅의 중심, 山 ● 92
   조선시대의 산관 (山觀) / 고지도의 山

5. 맥(脈)으로 흐르는 山 ● 102
   산수고 (山水考) / 산경표 (山經表)

6. 빼앗긴 산줄기 100년 ● 114

Ⅲ. 백두대간, 그 이름을 찾아서

백두대간, 그 이름을 찾아서 백두대간, 그 이름을 찾아서 백두대간, 그 이름을 찾아서 백두대간, 그 이름을 찾아서

Ⅲ. 백두대간, 그 이름을 찾아서

1 이 땅에 천년을 흘러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지형을 하나의 맥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형인식은 알게 모르게 이미 천 년동안 이 땅에서 소용되어 왔다. 이를 증명하는 최초의 공식적인 기록은 『고려사』에 실려 전한다. 『고려사』는 조선초기 김종서와 정인지 등이 세종의 교지를 받아 만든 고려시대의 역사책이다. 적어도 고려시대에 이미 백두대간 식의 지형인식체계가 존재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고려사』에는 한국 고대 풍수지리의 아버지라 할 도선국사의 비기(秘記)를 인용하여 이렇게 적고 있다.

이 땅의 지맥은 북방인 백두산으로부터 수와 목이 근간이 되어 내려와서 마두명당(馬頭明堂)이 되었으며, 당신은 또한 수명(水命)이니 마땅히 수(水)의 대수(大數)를 좇아서 집을 육육(六六)으로 지어 36간으로 하면 천지의 대수(大數)에 부합하여 명년에는 반드시 슬기로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에게 왕건(王建)이라는 이름을 지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는 고려 태조 왕건을 지목하여 신성시하면서, 백두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지맥의 명당이 배출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산을 하나의 고립된 봉우리로 보기 보다는 흐름을 가지고 이어지는 맥(脈)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형인식은 풍수사상의 보급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삼국시대 이후 풍수사상이 보급되면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국토의 지형을 이해했을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1454년 만들어진 『세종실록지리지』를 통해서도 백두대간의 개념이 이미 존재했음을

엿볼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편찬한 지리지였으며 실록을 편찬하면서 다시한번 검증과정을 거친 국가의 공식 문헌이다. 이 책에서는 함길도(咸吉道, 후의 함경도)의 영역을 이렇게 적고 있다.

동쪽은 큰 바다에 임하고, 남쪽은 철령(鐵嶺)에 닿고, 서쪽은 황해도와 평안도에 접하였다. 준령이 백두산에서부터 기복(起伏)하여 남쪽으로 철령까지 천 여리에 뻗어 있다.

지역의 주요지형을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산줄기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의 함길도 길주목(吉州牧)에도 주목되는 기록이 있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바다까지 78리, 서쪽으로 백두산의 내맥(來脈)인 대산(大山)에 이르기 90리인데, 갑산(甲山)과 접경이 되며, 남쪽으로 단천(端川) 마천령까지 91리, 북쪽으로 경성(鏡城) 운가위(雲加委)의 대천(大川)에 이르기까지 89리 이다.

이 기록에서는 길주의 서쪽 경계인 대산을 백두산의 내맥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초기에 백두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산지의 개념이 용어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국가의 안정과 부흥을 이룩하였던 국왕 정조의 다음 언급은 당시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땅에 대한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

광릉(光陵)에 전배(展拜)하였다. 아침에 양주목을 출발해서 축석령(祝石嶺)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쉬었다. 이때 새벽비가 살짝 지나가고 아침 햇살이 깨끗하였는데, 사방의 산들이 수려함을 다투는 듯 영롱히 빛났다. 상이 승지 서영보에게 이르기를, "이 축석령은 백두산(白頭山)의 정간룡(正幹龍)이요, 한양으로 들어서는 골짜기이다. 산의 기세가 여기에서 한 번 크게 머물렀다가 다시 일어나 도봉산이 되고 또 골짜기를 지나 다시 일어나 삼각산이 되는데, 그 기복이 봉황이 날아오르는 듯하고 용이 뛰어오르는 듯하여 온 정신이 모두 왕성(王城)한 지역에 모여 있다. 산천은 사람의 외모와도 같은 것이어서 외모가 좋은 산천은 기색 또한 좋다."하였다.

정조는 축석고개를 백두산의 정간용(正幹龍)이라 지칭하고 있다. 당시 일반인은 물론

관료와 왕실에서도 백두산과 그에서 연결되는 지맥을 매우 중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백두대간이라는 정확한 표현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그 개념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도인 한양의 좋은 지세를 강조할 때, 또 한양이 백두산에서 내려온 국토의 정기가 모인 장소라는 인식을 강조하고자 할 때, 백두대간의 개념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봉황이 날아오르는 듯하고 용이 뛰어오르는 듯하여 온 정신이 모두 왕성(王城)한 지역에 모여 있다' 는 정조의 표현에 잘 드러나 있다.

백두대간의 개념은 이처럼 오랜 된 것이다. 하지만 백두산과 그에서 연결되는 산지인식체계가 확립된 것은 18세기 중엽이후로 알려져 있다. 18세기 중엽 성호(星湖) 이익(李瀷, 1681~1763)은 「백두정간(白頭正幹)」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백두산은 우리나라 산맥의 조종이다. 철령으로부터 그 서쪽의 모든 가지들은 서남쪽으로 달렸다. 철령으로부터 태백산, 소백산에 이르기까지 하늘에 닿도록 우뚝 치솟았으니 이것이 곧 정간(正幹)이다. …… 그 왼쪽 줄기는 동해를 끼고서 뭉쳐 있는데, 하나의 큰 바다와 백두대간(白頭大幹)은 시종을 같이 하였다. 거북이와 자라, 용과 물고기들이 여기에 살고 재화가 여기에서 번성하니, 문한히 인재가 양성되는 까닭이다. …… 대개 한 줄기 곧은 대간(大幹)이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태백산에서 중봉을 이루고 지리산에서 끝나니, 당초 백두정간이라 이름 지은 것이 뜻이 있어서일 듯하다. 그리고 인재가 나온 곳간이 되었으니, 필경 국가가 기댈 바가 다른 곳에 있지 않음을 알겠다.

백두대간이라는 명칭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백두정간(白頭正幹)' 이라는 이름을 제목으로 다룬 글이다. 더욱이 본문 중에는 백두대간의 왼쪽 줄기가 동해를 끼고 뭉쳐 있으며, 큰 바다와 처음과 끝을 같이 한다고 서술하면서 백두대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도관애(西道關隘)」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대체로 백두대간(白頭大幹)은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달린다. 그 사이에 철령이 북관(北關)의 관문이 되고, 조령이 동남의 관문이 되었다"라고 하여 백두대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이익은 대간과 정간이라는 명칭을 혼용하였다. 또, 18세기 중엽 성호 이익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백두대간이라는 용어가 자리 잡아 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의 지리학자 청담 이중환(李重煥, 1690~1756)이 쓴 『택리지(擇里志)』에도 백두대맥(白頭大脈), 백두남맥(白頭南脈), 대간(大幹) 등의 표현이 보인다. 또한, 정약용도 『대동수경(大東水經)』에서 백산대간(白山大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조선시대 지리학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는 각종 지리지에도 산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나온다. 앞서 언급했던 조선초기의 지리지를 이어,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이 편찬한 전국지리지인 17세기의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함경도 갑산도호부의 「산천(山川)」조에는 '우라한령(?羅漢嶺)'을 "백두산의 남쪽 가지이다. 국내 산맥이 모두 이곳을 근본으로 삼는다"고 기록하여 산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영조대에 왕명으로 편찬된 전국 읍지(邑誌)인 『여지도서(輿地圖書) 』에는 모든 군현의 「산천(山川)」조에 산의 흐름을 표시하여 주목된다. 이전의 읍지들과 달리 「산천」조에는 내맥(來脈), 대맥(大脈), 주맥(主脈), 낙맥(落脈), 후맥(後脈)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용어는 뒤에 기술할 『여지도』등 18세기에 제작한 지도에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함흥(咸興)의 「산천」조에는 "부내의 산맥(山脈)이 백두산으로부터 북청의 후치령을 따라 부의 북쪽 경계 원천사에 이르러 태백산이 되었다"고 하였다. 『여지도서』의 이와 같은 산천 기록은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백두대간 즉,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산맥 표현을 중시하고 그것이 일반화되었음을 더욱 확실히 보여준다.

18세기 이후에는 백두산을 포함한 북방지역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고, 관심의 대상도 영토와 정치적인 측면 뿐 아니라 이 지역의 사회 · 인문 · 경제적 측면까지 확대되었다. 즉, 국토 전역을 균형적으로 보는 넓은 차원으로 관심이 진전되었다. 백두산이라는 점적인 대상에 주목하였던 것에서 나아가 조선후기에는 백두산을 포함한 북방지역 전체, 그 지역의 주민과 그들의 삶에까지 관심의 폭이 넓어졌다. 따라서 백두산으로부터 가지와 줄기로 연결되는 백두대간과 산지인식은 위와 같은 국토에 대한 포괄적인 관심에서 체계화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2 큰 이름, 山

산이라는 이름은 모든 나라에 있다.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땅의 산을 생각하는 산관(山觀)은 각각 다르다. 생활의 대상, 신앙의 대상, 정복의 대상, 공포의 대상 등 그 무엇일 수도 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땅 어디를 가든 산과 만났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는 지평선 대신 높고 낮은 산이 버티고 있었다. 그만큼 좁은 땅 덩어리 중에서도 산은 시각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산은 힘들 때나 지칠 때나 늘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우리 민족에게 평안을 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도 산은 인류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산은 인류에게 육류와 과일 등의 음식물뿐만 아니라 각종 의생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산 속의 동굴과 숲은 훌륭한 서식처가 되었다. 아울러 산은 눈, 비, 구름, 안개, 바람 등 기상의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신비로운 곳으로 여겨지며, 그 정상은 천상과 이어지는 통로로써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원시인류는 산악을 다스리는 초월적 존재로써 자연스럽게 산신을 마음으로 믿게 되었다.

더욱이 우리 민족에게 산은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다. 단군이 내려온 신단수도 산이었고, 산에 빌어 낳은 자식들의 후예가 바로 우리다. 세 칸 집을 지어도 산을 등지고 앉아야 평안함을 느꼈으며, 산은 지식과 수양의 대상이요, 의식주를 얻는 대상이자 소망의 대상이었다. 또 죽음 앞에서는 어땠는가. 영원한 쉼터를 산에 마련하고 환생을 기다리는 초월적 존재가 바로 산이었다. 우리민족에게 산은 낳고, 살고, 쉬는 공간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무엇보다 큰 이름이 산이었다.

산에 든다

오늘날 웰빙 열풍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건강을 위해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따라서 등산이라는 단어도 자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 높고 험준한 산을 정복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 승리로 여겨지며 매스컴의 각광을 받는 시대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산을 오를 때 등산이나 정복이라는 말의 사용은 감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산에 들어갈 때 배설물을 받아들고 나올 수 있도록 미리 그릇을 챙겨 들어갔다. 어머니 몸체와 같은 산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다. 또한 산중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노래를 하면 산신령이 노한다고 하여 조심하였다. 따라서 산에 오를 때는 반드시 산에 든다하여 입산(入山)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산에 들 때면 일부러 느슨하게 삼은 짚신인 오합혜(五合鞋)를 신었다. 이는 행여 산길에서 작은 미물이라도 밟혀 죽지 않도록 한 배려였다.

우리의 건국신화의 장소는 태백산 신단수이다. 우리에게 산이 더욱 특별하였던 이유는 여기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부터 산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로서 초월적 존재로 여겨졌을 것이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처럼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산을 신성시하고 초월적 존재로 여겼는데, 이는 산을 지칭하였던 다양한 명칭에서 더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

〈1〉 천산(天山)과 백산(白山)

먼저 천산과 백산은 가장 신령스러운 산에 붙인 이름이다. 산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 형성되었으므로 천산이라 한다. 그러나 모든 산을 천산이라 지칭하지 않았다. 천산은 천신(天神)이 머무르는 곳으로 곤륜산(崑崙山), 백산(白山) 등과 같이 숭고하고 신성하게 여기는 산을 말한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곤륜산을 천지의 중심이자 모든 산의 원천으로 보았다. 천산 관념은 알타이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박시인, 1981), 우리나라의 특징은 수많은 천산, 백산 계열의 산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의 광명한 기운이 스미는 곳이라 하여 백산이라 이름하였기에 천산이 곧 백산이다. 백두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천산이다.

〈2〉 용산(龍山)

천산이 능동성을 지닌 산용(山龍)이 되어 물을 융섭하는 과정을 거치니 이것이 용산 관념이다. 용은 천변만화(千變萬化)하여 인간에게 길흉을 주는 신성한 존재다. 산도 사람에게 마찬가지 존재라고 여겨 용산이라 불렀다.

천산에서는 산을 보되 하늘 위주의 관념이었으니 산에 대한 태도는 숭배로 나타났었다. 그런데 농경사회로 진입하고 땅에 대한 인간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땅이 지닌 힘에 대한 신앙이 생겨났고, 물이 중시되었으며 아울러 산에 대한 관념과 태도도 변하게 되었다. 산에는 정중동(靜中動)의 조화무궁한 기운이 있다고 생각된 것이다. 그 산은 하천에 이르러 물을 만나고 있었으니 용이란 이름을 빌어 용산이라 이름 하였다.

〈3〉 신산(神山)

산은 신의 거주처이므로 신산이다. 하늘이란 형체를 일컫고, 하늘의 묘용(妙用)을 신이라고 했으니, 신은 하늘의 의미가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온 개념이다. 따라서 신산은 천산보다 인간화된 표현이다. 단군신화에서 중요한 사실은 '천신이 인간화' 한 것과 "아사달로 돌아와 산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신라의 탈해왕도 죽어서 토함산 산신이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삼신산(三神山) 관념이 시작된다. 하늘이 산에 내려와 인간이 되고, 죽어 다시 산으로 깃들어 나라와 마을의 수호신이 되니 하늘과 산과 사람은 상관적이라는 관념이 생겼다.

〈4〉 불산(佛山)

우리 민족이 지닌 신산 관념의 또 다른 특징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불산 관념이다. 불암산(佛岩山), 불견산(佛見山), 조계산(曺溪山), 화엄산(華嚴山), 문수산(文殊山), 반야산(般若山) 등 전국 도처의 산에서 나타나는 불교와 관계된 산이름들은 우리나라의 산이 불교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음을 잘 말해 준다. 불산은 부처와 산이 일체화된 개념이다.

〈5〉 풍수의 사신사(四神砂)와 오성(五星), 조산(造山)과 가산(假山)

지리적 측면에서 한국인의 전통적인 자연관과 지리적 관념을 체계화한 것이 풍수이다. 풍수 및 풍수적 사고는 우리 지리관의 밑바탕을 형성하는 자연관이다. 풍수에서는, 만물을 생성하는 기는 산에서 발원하고 산의 맥을 통하여 흐른다고 보았다. 풍수의 기본 구성을 이루고 있는 사신사(四神砂)는 풍수지리로 지세를 살필 때, 전후좌우에 있는 네 개의 산을 말한다. 사신사는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 전주작(前朱雀), 후현무(後玄武) 등을 말하며 이 사신사의 위치에 따라 명당(明堂)의 지형과 지세를 파악한다.

오성 관념은 하늘과 땅이 상관적이라는 관념이 음양오행론의 발전에 영향을 입어 구체화되고, 아울러 기와 형은 서로 응하는 것으로 인지됨으로써 본격화된 듯하다. 이러한 형기적(形氣的) 산관은 이어 형세적(形勢的) 산관으로 발전하는 배경이 된다. 오성은 금성, 목성, 수성, 화성, 토성을 일컬음인데, 하늘에서는 상(象)을 이루고 땅에서는 형(形)을 이루어 오행이 된다. 오성산의 인식에 이르러 기와 형은 온전히 상응하게 되어 형기(形氣)로 산을 본다. 형은 생(生)의 집이요, 기는 생이 충만한 것이다. 형기라 함은 형상, 형국을 이름이고, 형기의 기는 형상을 통하여 그 기를 본다.

가산과 조산, 선돌, 돌무더기, 당산, 장승, 탑, 솟대, 당간, 동수(洞藪), 지명 등은 산천의 단점을 인간이 사랑하고 보완해서 쓰는 것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자연관의 하나이다.

여러 민족들의 신화와 신앙에서, 산은 하늘과 땅을 잇는 축으로 여기고 있다. 산은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로 이곳을 통해 하늘의 신이 강림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진 산에 대한 인식은 수직적이거나, 혹은 아래로 임한다는 하향적 관계뿐만이 아니다. 단군 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하늘이 산을 통해 단군으로 인간화하고, 죽어서 다시 산의 신으로 돌아간다는 순환 구조적인 원형상이 있는 것이다.

山에 제를 올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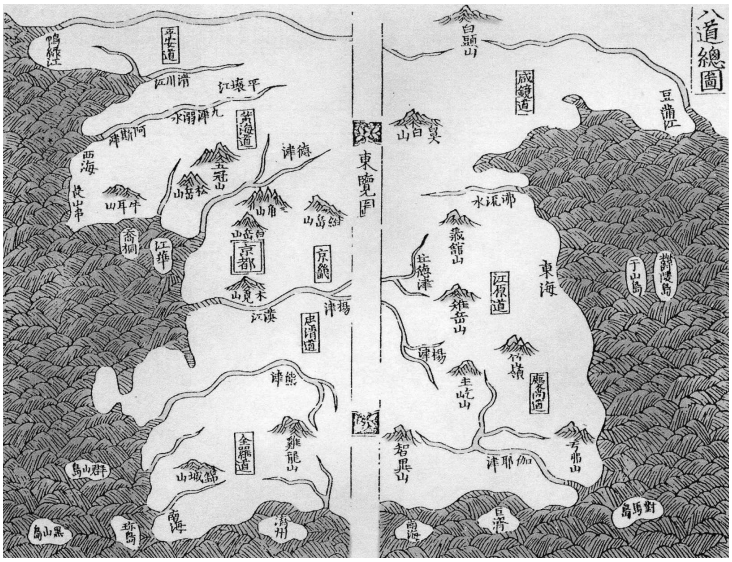
한국 신화속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산으로 하강하고 있다. 단군신화에서는 환웅이 '삼위태백' 이라고 표현된 태백산으로, 주몽신화에서는 해모수가 웅심산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수로신화에서 수로는 구지봉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혁거세신화에서 나타나는 육촌장들 역시 모두 산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띠고 있다. 따라서 산은 신이 하강하는 장소이자, 신이 머무르는 장소로 여겨졌다. 이처럼 초월적 존재로 신성하고 경이롭게 여겨졌던 산이 인간에게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특히, 동양에서는 산을 인간과 유기적, 조화적 관계로 보았으며 산을 포함한 땅을 우리들의 원형이요, 어머니의 품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산은 국가에서도 중요한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 되었다.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신앙으로 굳어진 것은 신라시대 때이며 이것을 삼산(三山) 신앙이라고 하였다.

신라에서는 대사(大祀) · 중사(中祀) · 소사(小祀)로 나누어 제를 올렸다. 대사(大祀)는 삼산이라고 해서 왕도 주변에 있는 산 세개를 지정하여 제사를 올리고 국가의 큰 행사로 여겼다. 중사(中祀)는 오악(五嶽)을 정해 지내는 제사이며, 소사(小祀)는 전국의 명산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이러한 삼산신앙은 고려에 와서 팔관회라는 이름의 행사가 되었고 그것은 훗날 산천제에 영향을 끼쳤다.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제사지(祭祀志)」를 보면 보다 구체적인 기록을 만날 수 있다. 고구려의 제례로서 "언제나 삼월삼짇날이면 낙랑의 언덕에 모여 사냥하였으되, 사냥한 사슴과 돼지를 하늘과 산천에 제사 올렸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 신라의 제례로는 "삼산오악(三山五嶽)과 그 밖의 명산대천(名山大川)을 나누어서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를 올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통일신라는 토함산, 지리산, 계룡산, 태백산, 부악(父岳, 지금의 팔공산)을 오악(五嶽)으로 삼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제사인 중사(中祀)를 행하였다. 그러나, 삼국통일 이전에는 경주 남산, 경주 선도산, 토함산, 금강산, 단석산(斷石山)을 오악으로 정하였다. 이 오악은 수도이던 경주부근에 위치한 것이었으나 통일이후 영토가 확장됨에 따라 넓은 범위로 확장된 것이다. 토함산은 왜적에 대한 방어, 태백산은 고구려, 계룡산은 백제, 지리산은 가야지역의 수호를 맡는 호국의 의미가 컸다. 하지만 오악을 정하고 중사를 지낸 것은 고유의 자연신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백제와 신라에서도 산신을 숭상하여 산신에게 제사 지내기를 좋아하였다. 백제에서는



|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 수록된 「팔도총도」〉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인 이 책의 전도에는 중사(中祀)와 소사(小祀)를 지내는 산천이 표시되어 있다.

부여풍이 신라의 김법민과 백마를 잡아 맹세하기에 앞서 산곡(山谷)의 신에게 제사하였고, 신라의 탈해왕은 죽어서 동악신(東岳神)이 되어 문무왕의 꿈에 나타났다고 한다.

고려의 4대산은 덕적산, 백악, 송악산, 목멱산이었으며, 이들 산의 산신에게 봄, 가을로 제사를 지냈다. 고려시대에는 국가의 체제 정비를 유교의 정치사상과 예적 질서를 바탕으로 행하게 되어 유교에서 말하는 사전(祀典)을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

조선에 들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수록된 제사처 중 자연과 관련된 제사로 산천신(山川神)과 성황신(城隍神)을 제사지내는 풍운뇌우(風雲雷雨)와 악해독(岳海瀆)이 있었다. 악해독에서 악은 산악에 대한 제사를 뜻하며, 해는 동 · 서 · 남해신에 대한 제사, 독은 큰 강에 대한 제사를 뜻한다. 그 밖에 기우제인 우사가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에 이러한 제사 처들이 실려 있다.

한편 조선시대 민가에서도 각 주 · 읍에 반드시 그 북쪽에 진산(鎭山)을 정하고 그곳에 산신당을 지어 봄 · 가을과 정초에 제사하는 풍속이 있었다.

아직까지도 우리들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명산에 올라서 제사를 드리곤 한다. 그것은 산신령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친근하게 바뀌어서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는데, 우리의 역사를 지켜보고 보살펴 준 신화 속 우리의 조상들에게 우리는 아직까지도 기대고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산신령은 신화속에서 태백산으로 내려온 환웅이기도, 구지봉으로 나타난 수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3 산 중의 산, 백두산

백두대간이라는 명칭은 백두산에서 뻗어내린 큰 줄기라는 의미를 지닌다. 다시말해 한국의 모든 산들이 백두산을 모태로 줄기차게 뻗어 있다. 따라서 예로부터 백두산은 민족의 성산(聖山)으로 숭배되어왔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특별한 산이다. 단군(檀君) 탄강(誕降)의 설화로부터 시작하여 언제나 크고 높으며 성스러운 산이 백두산이었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백두산을 '나라의 빛나는 양산(陽傘)' 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다산 정약용은 『대동수경(大東水經)』을 통해 "8도의 모든 산이 다 이 산에서 일어났으니 이 산은 곧 우리나라 산악의 조종(祖宗)이다."라고 기록하며, 백두산이 우리 산의 뿌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조선시대 사람들이 지녔던 백두산에 대한 숭앙심과 백두산의 영역적 의미에 관한 보편적인 인식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홍세태의 백두산 기문에 이르기를 백두산은 북방 모든 산의 조종(祖宗)이다. 청나라의 선조가 여기에서 일어났으니 우리의 북쪽 국경에서 300여리 쯤 되는 곳이다. 저들은 장백산이라 하고 우리는 백두산이라 하는데, 두 나라가 산 위에서 갈라진 두 강으로 경계를 삼는다.

특히, 백두산은 전국 모든 산의 조종이자 우리 성조(聖祖)께서 위대한 왕업(王業)을 시작한 곳으로 여겨지는 대목은 백두산이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 신성시 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백두대간이란 명칭은 백두산에서 뻗어 내린 큰 줄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백두산의 명칭이 확립된 이후에 사용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백두산의 명칭에 대해 다산 정약용은 『대동수경(大東水經)』을 통해 여덟가지 이름을 제시하고 있다. 불함(不咸), 개마(蓋馬), 도태(徒太), 태백(太白), 장백(長白), 백산(白山), 백두(白頭), 가이민상견(歌爾民商堅) 등이 그것이다. 육당 최남선은 백두산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진한간(秦漢間)의 고서에 불함(不含)의 명(名)으로 보이고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에는 도태산(徒太山) 혹 태백산(太白山)으로 닐컬리고 금대(金代)로부터 백산(白山) 혹 장백산(長白山)의 칭이 생겨서 시방까지 지나(支那)에서는 장백산으로 통칭하며 반도(半島)에서는 오로지 백두산의 명을 써서 이것이 고려사 광종 십년(서기 959) 조에 보엿다.

중국에서는 시대에 따라 백두산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서 불함산, 도태산, 태백산, 백산, 장백산 등으로 부르다가 장백산이라는 이름으로 호칭하였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백두산은 단단대령(單單大嶺), 개마대산(蓋馬大山) 등으로도 불렸다.

육당은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백두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고대에는 백두산을 태백산으로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또, 조선시대에는 장백산과 혼용하였다. 장백산이라는 호칭은 뒤에 언급하듯이 『경상도지리지』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도 여러 곳에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함경도 회령도호부 「산천」조에서 백두산이 곧 장백산이라고 설명한 것과『대동수경』에 장백산으로 기록한 것 등은 장백산이라는 이름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백두산을 민족의 성산으로 본격적으로 숭배한 것은 고려 태조 왕건의 탄생설화 때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高麗史)』「고려세계(高麗世系)」에는 왕건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김관의의 『편년통록』에 옛날에 호경(虎景)이라는 사람이 '성골장군' 이라고 자칭하면서 백두산으로부터 산천을 두루 구경하다가 부소산 왼쪽 산골에 와서 장가를 들고 살았

다.…… 세조는 송악산 옛 집에 여러 해 살다가 또 새 집을 그 남쪽에 건설했는데 그 터는 곧 연경궁 봉원전터이다. 그 때에 동리산(桐裏山) 조사(祖師) 도선(道詵)이 당나라에 들어가서 일행(一行)의 지리법을 배워 가지고 돌아왔는데 백두산에 올랐다가 곡령(鵠嶺)까지 와서 세조의 새 집을 보고 "기장을 심을 터에 어찌 삼을 심었는가?" 이 땅의 지맥은 북방인 백두산으로부터 수(水)와 목(木)이 근간이 되어 내려와서 마두명당(馬頭明堂)이 되었으며, 당신은 또한 수명(水命)이니 마땅히 수(水)의 대수(大數)를 좇아서 집을 육육(六六)으로 지어 36간으로 하면, 천지의 대수에 부합하여 명년에는 반드시 슬기로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에게 왕건(王健)이라는 이름을 지을 것이다.

고려 태조 왕건이 백두산의 정기를 받아 탄생했다는 것을 강조한 기록이다. 같은 내용이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적혀 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였으나 신라의 수도는 국토의 동남쪽에 치우쳐 있었다. 다시 분열되어 후삼국시대를 맞이하였다가 고려가 이를 통일하였다. 고려는 통일 후 수도를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한 개성으로 옮겼다. 위의 기록은 왕건의 태생지인 개성과 왕건의 인물됨을 풍수에 의탁하여 신성화한 내용이다. 그런데, 개성이라는 지역과 왕건이라는 인물을 신성화하는 근거와 수단으로 백두산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백두산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신성한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었으며, 백성을 통합할 설득력 있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한편 역사속에서 백두산은 국경 분쟁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였다. 고려시대까지 백두산은 우리의 영토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백두산은 여진족의 거주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백두산은 15세기 초에 적극적인 북진정책과 여진족 정벌을 통해 영토로 확보되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국경문제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백두산 보다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더욱 중요한 경계의 지표로 여겨졌다.

조선왕조를 개창한 태조 이성계는 4대조인 이안사(李安社) 때부터 당시 여진족의 땅이었던 두만강유역에서 거주하였다. 이성계는 조상의 옛 터인 동북지방을 중요시하였으며, 건국 후 바로 길주의 국경한계를 두만강하류 공주까지 연장시키고, 그곳에 성을 쌓고 경

원도호부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거주지를 잃어버린 여진족의 습격으로 여진족과의 충돌이 계속되었다.

이후 세종은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선으로 하는 국경을 확정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신라의 삼국통일이후 700여 년 이상 빼앗겼던 옛 땅을 회복한 세종은 압록강유역에 4군, 두만강유역에 6진을 설치하여 행정력이 미치도록 하였다.

한편, 임진왜란 때 조선에 대한 원병 등으로 명나라의 힘이 약해지자 여진족은 그 세력을 강화하기에 이른다. 1616년(광해군 8)에 누루하치가 심양(瀋陽)에 후금(後金)을 세우고, 1627년과 1636년에는 조선을 침공하였으며, 1636년에는 나라이름을 청이라 개칭하고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되었다. 중국을 점령한 청나라는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그들 조상의 발상지를 성역화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윽고, 1677년에는 장백산을 가서 살펴오도록 하였으며, 1678년에는 장백산신(長白山神)을 봉하고 오악(五嶽)과 동일하게 제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앞선 1644년에는 조선 백성이 국경을 넘어 인삼을 캐거나 벌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조선 국왕에게 이첩해서 엄히 금지토록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여진의 뿌리지역이며 동시에,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백두산은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문제라는 불씨를 항상 간직할 수밖에 없었다.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의 주인이 된 청나라와의 사이에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국경문제가 제기되고, 백두산은 국경 분쟁의 초점이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백두산은 정치적, 현실적 측면에서 국왕이하 온 국민의 관심대상이 됨으로써 민족의 상징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고 할 수 있다.

1712년(숙종 38)에 조선과 청나라는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土門江)'으로 국경을 정하고 백두산 남쪽 10리 지점에 정계비를 세워 국경문제를 일단락지었다. 조선도 1767년(영조 43)에 함경도 갑산부 80리 지점 운총보(雲寵堡) 북쪽 망덕평(望德坪)에 장소를 골라 각을 세우고 백두산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백두산 치제는 국가의 조종산으로서의 백두산의 의미를 확고하게 하였음은 물론 왕실과 왕권, 함경도 지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4 이 땅의 중심, 山

조선시대의 산관 (山觀)

현재의 우리들은 전통적인 산천인식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우리의 국토와 산천을 이해하고 있다. 즉, 오랜 시간 동안 전통과 단절되어 흘러왔다. 한편 옛 산천인식체계를 검토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풍수만으로 이해하고 있어 오해가 따르기도 한다. 이로 인해 전통지리학에서 다루었던 국토와 산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도 생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우리 국토와 산천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검토하기로 하자. 또한 그 동안 소홀하게 연구되어 왔던 전통지리학의 지리지와 지도 등을 활용하여 우리 국토의 자연에 대한 인식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에는 건국 초기부터 지도(地圖)와 지지(地志)의 편찬 사업이 왕성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세종대와 세조대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도제작기술의 발달은 조선의 각 지역을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건국 후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고, 태종대에는 전국의 행정구역체계를 개편하였다. 태조대에서 세종대에 걸쳐 압록강 · 두만강 유역 일대의 영토회복과 주민의 이주 등도 시행하였다. 새 왕조 개창 후 이러한 일련의 지역구조와 지역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각 지역과 주민, 물산(物産)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요청되었고, 이를 위해

서는 지도와 지지 편찬이 선행되어야 하였다.

16세기 이후에는 각 지방단위로 상세한 읍지(邑誌)가 편찬됨에 따라 각 지역에 대한 정보의 양과 질은 한층 높아질 수 있었다. 16, 17세기에는 사찬읍지(私撰邑誌)가 활발하게 편찬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18세기 이후에는 국가적인 관심 아래에서 관찬읍지(官撰邑誌)들이 다수 편찬되어 조선시대 지리학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함께 지역의 변화상도 파악할 수 있었다. 더욱이 18세기 이후 읍지 대부분에 해당 군현의 지도가 첨부되고, 지도제작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뤄지면서 지역의 모습을 공간적으로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 작성된 지도나 지리지는 당시 사람들의 자연인식체계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그 속에서 엿볼 수 있는 조선시대의 이원적 자연인식체계는 백두산을 우리 국토의 중심이며 뿌리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조선시대 국토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중 첫째는 백두산 중심의 사고와 수도인 한양을 중심으로 보는 사고 체계다. 이러한 내용은 지리지나 지도 등에도 보편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둘째는 산을 중심으로 보는 사고와 강을 중심으로 보는 사고체계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산천인식체계 가운데 백두산 중심의 체계와 수도인 한양 중심의 산천인식체계가 먼저 성립되었다. 그리고 18세기 이후 산을 위주로 한 체계와 강을 위주로 한 인식체계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백두산과 한양 중심의 이원적 분리는 실제 삶의 전개속에서 우러난 이해체계라 할 수 있다. 후자에서는 산 중심의 인식체계가 먼저 정리되었으며, 뒤에 강 중심의 인식체계가 정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 백두산 & 한양

백두산을 국토의 조종(祖宗)으로 보는 관점은 매우 오래되었을 것이나 조선에 이르러서도 백두산에 대한 외경심은 여전하였다. 17세기에 여진족인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한 후, 청과 조선 양국 사이에 국경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백두산에 대한 신성화는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에는 이 일대의 인구증가와 광공업의 발달로 인한 경제적 중요성의 증대 등으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백두산 중심의 산천체계는 우리나라의 자연적인 지세로 볼 때 당연한 것이었다. 백두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넓은 산으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또, 머리에는 항상 흰 눈을 덮고, 그 정상에 호수까지 있어 늘 신비감을 더해주었다. 이런 면에서 백두산 중심의 산천인식은 인문적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이요, 국가적 차원이라기보다 민간적 차원에서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백두산 중심의 산천(山川)인식체계는 고지도에 전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고지도에는 백두산을 크고 두드러지게 그리고 흰색이나 황금색으로 강조하여 돋보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식체계를 서술한 대표적인 책이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의 「여지고(輿地考)」이며, 이중환이 쓴 『택리지』도 그러한 인식을 기저로 하여 쓴 책이다.

한편, 수도를 중심으로 국토를 파악하는 사고는 전통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국왕이 거주하며 국가의 중심인 수도는, 기능적으로도 국가의 행정적 · 문화적 중심이었다. 조선시대에 한양을 중심으로 한 사고는 방위의 표현을 한양 중심으로 하는 등 지도 제작은 물론 지리지와 여러 읍지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한양 중심의 사고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인식체계와 비교하였을 때 자연적이라기보다 인문적이라 할 수 있다. 수도의 위치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상대적인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 중심의 이러한 체계는 도로나 행정체계, 상업구조 등에서 실제로 사람과 물자의 유통이 이뤄지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써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2〉 산 & 강

또다른 이원적 자연인식체계가 조선 후기에 성립되었는데, 산을 중심으로 한 체계와 강을 중심으로 한 체계이다. 전자를 잘 정리한 대표적인 책이 『산경표(山經表)』이며, 후자의 예는 다산 정약용이 쓴 『대동수경(大東水經)』에서 나타난다.

산 중심의 산천인식은 산줄기의 흐름과 갈래를 파악하고 정리한 것으로서 백두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산의 맥(脈)을 중시하였다. 이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원형적인 사고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산을 신성시하는 전통적이고 고대적인 사고와 이어지는 것이다. 한편, 산은 지역의 경계를 이루고 지역과 지역을 나누는 역할을 한다. 즉, 생활면에서 산 중심의 산천인식은 통합보다 분리의 측면이 컸다.

강을 중심으로 한 국토와 자연인식체계는 산과 산 사이에 전개되는 분지와 골짜기,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하천을 따라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파악한 것이다. 이는 생활권 단위로 하여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삶의 터전이 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산은 그 경계가 되는 현상을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자연 그 자체의 초월적 모습보다 인간과 조화를 이룬 측면을 중시한 체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이원적 인식 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조선시대의 자연인식체계

체 계	체계의 중심	특 징				
1	백두산	자연적	민간적	원형적	가시적	절대적
	한 양	인문적	국가적	현실적	인위적	상대적
2	산	신성화	맥세(脈勢)중심	이념적	초월적	분리적
	강	인간화	생활권 중심	현실적	조화적	통합적

고지도의 山

말 없는 한 장의 고지도일지라도 그 속에 담겨진 이야기는 많다. 빛바랜 그림 한 장 속에는 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자료들이 숨어 있듯이, 지도 역시 한 시대의 생활상과 지역, 의식 등을 담고 있다. 따라서, 고지도를 통해 만나는 백두대간은 옛 선조들의 백두대간에 대한 인식을 보다 꾸밈없이 전해주고 있다.

조선건국 직후인 1396년(태조 5)에 이첨(李詹, 1345~1405)은 「산국도후서(三國圖後序)」에서 고려의 지도를 보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삼국을 통합한 뒤에 비로소 고려도(高麗圖)가 생겼으나 누가 만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산을 보면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구불구불 내려오다가 철령에 이르러 별안간 솟아오르며 풍악(楓岳)이 되었고, 거기서 중중첩첩하여 태백산, 소백산, 죽령이 되었다. 중대(中臺)는 운봉(雲峯)으로 뻗쳤는데 지리와 지축(地軸)이 여기에 와서는 다시 바다를 지나 남쪽으로 가지 않고 맑은 기운이 서려 뭉쳤기 때문에 산이 지극히 높아서 다른 산은 이만큼 크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 등의 서쪽으로 흐르는 물은 살수(薩水)인데 모두 서해로 들어가고, 그 등마루 동쪽으로 흐르는 물중에서 가야진(伽倻津, 낙동강)만이 남쪽으로 흘러갈 뿐이다. 원기가 화하여 뭉치고 산이 끝나면 물이 앞을 둘렀으니, 그 풍기의 구분된 지역과 군현의 경계를 이 그림만 들추면 모두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언급한 지도는 전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려시대의 전국 지도를 보고 기술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의 지도를 묘사한 이첨의 표현을 보면, 백두산으로부터 산맥이 연속되어 내려오고 있었음이 족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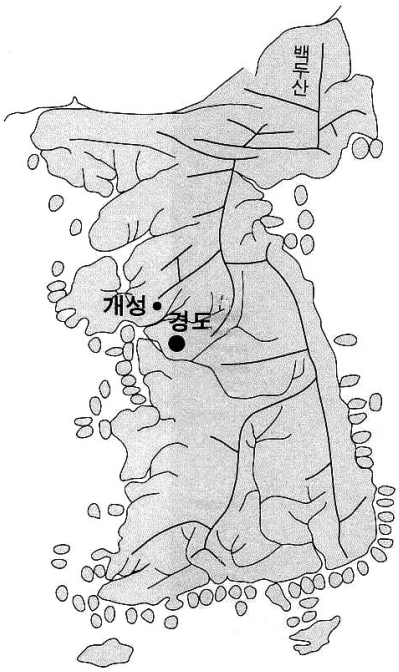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는 아프리카 · 유럽으로부터 일본까지 당시의 세계를 그린 세계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1402, 그림 5)이다. 이 지도에서 주목되는 점은, 16세기 이후의 지도들에서 강조되고 있는 백두산이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작은 글씨로만 쓰여 있다는 점이다. (그림 6의 상) 하지만 산지표현의 측면에서 볼 때 주목할 부분이 있다. 산지를 선으로 표현함으로써 산맥을 강조한 점이다. 조선 이외 지역의 산들은 개별봉우리로 처리한데 비하여, 조선의 산만 유일하게 산맥으로 표시하였다. 이것은 기본도로 사용하였던 당시 조선전도의 영향으로도 생각할 수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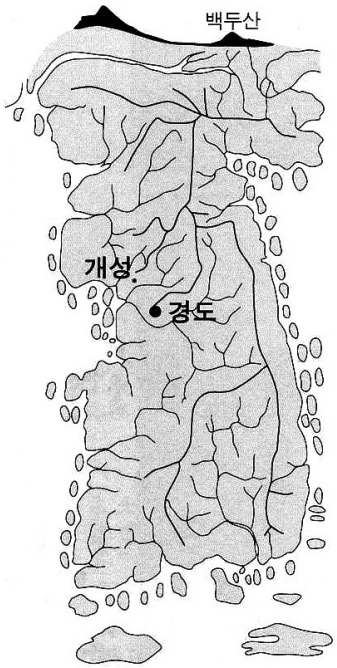
있으며, 위의 이첨의 글과 연결시켜 볼 때 고려시대 이래의 전통으로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눈여겨 볼 점은 이 지도에 표현된 산맥의 내용과 체계는 조선후기의 산맥 체계와 다르다는 점이다. 백두대간의 윤곽은 조선후기의 그것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백두산이 그 이남의 산맥들과 단절되어 있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하여 16세기 중엽의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混一歷代國都疆理地圖)』(인촌기념관 소장)를 보면, 그때까지도 조선의 윤곽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백두산이 크게 그려져 강조되어 있다. 또한, 한양으로 뻗은 산줄기가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어 백두산과 한양이 조선의 산천인식체계의 중심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1557년~1558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는 조선전기의 전도 중 단독지도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이다.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만주일대를 압축하여 그렸으며, 크고 작은 산맥을 상세하게 선으로 그려 넣었다. 그러나 백두대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곳이 단절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첫째는 백두산 바로 아래 부분이며, 둘째는 함경도 정평(定平)과 영흥(永興) 사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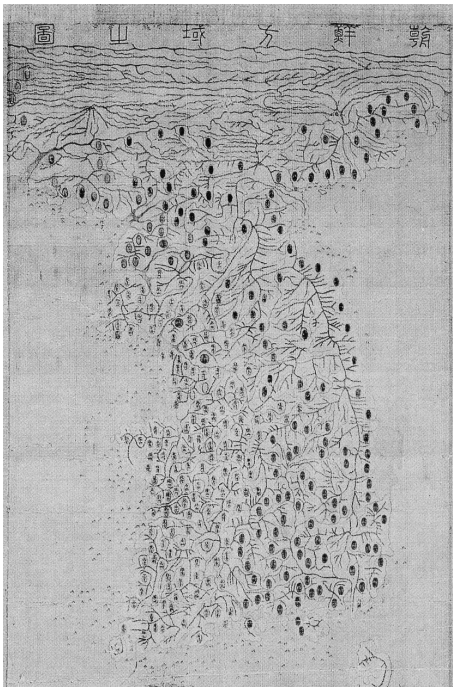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조선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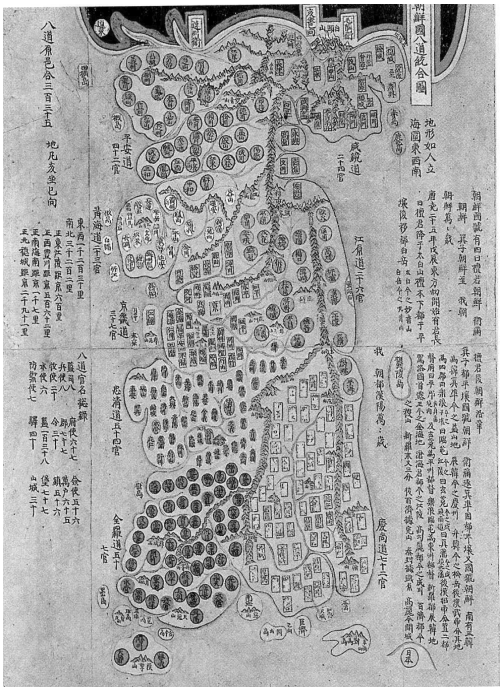
|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의 조선 부분

지금까지 소개된 지도는 세계지도 또는 조선전도에 표시된 산지의 표현이었다. 한편 18세기 군현지도에도 산지를 맥으로 인식하는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 18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강역총도(朝鮮疆域摠圖)』에는 지도의 여백에 산지의 맥을 특별히 기록해 놓아 주목된다. 경상도 북부지역 도폭에 '태백산대간(太白山大幹)…'으로 시작되는 설명이 우측상단에 있다. 충청북부지역을 그린 도폭에도 "태백산 대간룡(大幹龍)이 서쪽으로 속리산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대간의 남쪽 기슭이 되며, 한 가지가 꺾여 북쪽으로 가다가"라는 기록이 있으며, 경기도 도폭에도 '남간(南幹)', '간맥(幹脈)' 등의 표현이 지도 하단 주기에 적혀 있다.

1720년경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함경도지도(咸鏡道地圖)』는 중국 지도와 성경(盛京)지도, 조선총도, 함경도 각 군현의 지도를 수록한 지도집이다. 지도의 상단과 뒷면에 설명이 있다. 여기에 서울의 삼각산이 백두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산줄기라는 설명을 하면



| 『조선방역지도』



| 『조선국팔도통합도(朝鮮國八道統合圖)』

서 백두대간(白頭大幹)의 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백두산대간이 무산과 갑산 두 고을로부터 남쪽으로 와서, 허리와 머리를 돌려 서쪽으로 향해 (평안도) 영원 동쪽에 이른다. 무산 앞에서 동쪽으로 떨어지는 작은 산줄기 [東落小幹]가 온성과 행영(行營)을 지나 경원 서쪽에 이른다. 부령에서 남쪽으로 남은 작은 줄기[南落小幹]는 길주와 단천 사이에서 그친다. 또 남쪽으로 떨어지는 작은 줄기가 이성과 북청 사이에서 그친다. 또 남쪽으로 떨어지는 작은 줄기가 홍원과 함흥의 경계에서 그친다.

18세기 초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군현지도집인 『여지도(輿地圖)』, 그리고 이 지도를 19세기 초에 모사한 『광여도(廣輿圖)』에도 내맥, 대맥, 거맥, 낙맥, 산맥 등의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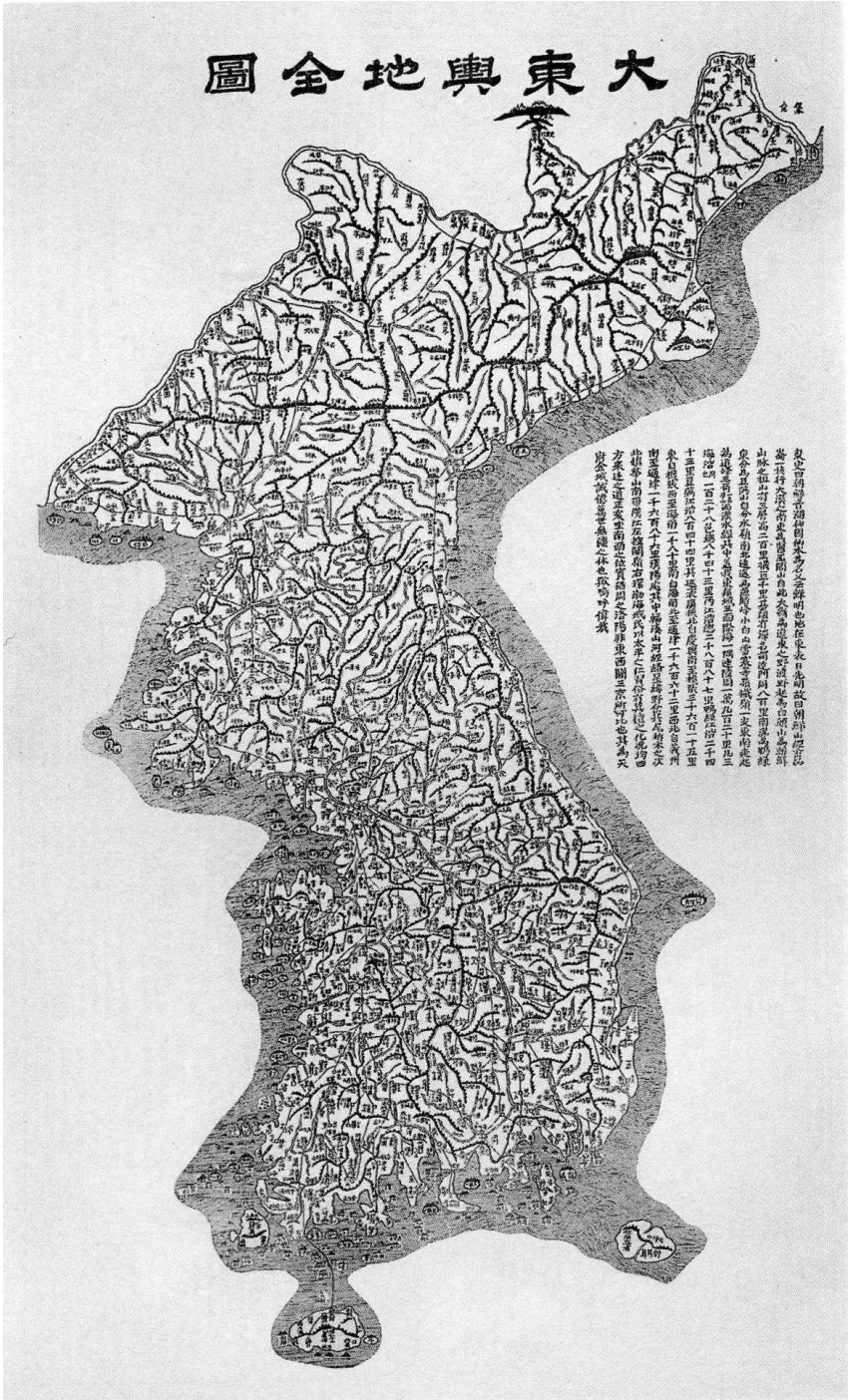
풍수와 다른, 국토에 대한 인식은 우리 국토의 형상을 인체에 비유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 또한 백두대간의 개념형성과 체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18세기 중엽에 제작된 군현지도집인 『해동지도(海東地圖)』중에 수록된 「팔도총도(八道摠圖)」의 우측 하단에는 우리 국토를 사람에 비유한 내용이 있다. 19세기 초의 지도로 추정되는 『조선국팔도통합도(朝鮮國八道統合圖)』(그림 12)에도 제목 아래에 우리나라 지형이 사람이 서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하였다.

사람에 비유할 경우 백두대간의 의미는 더욱 귀중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백두대간은 인체의 등뼈가 되어 인체를 지탱해주는 지주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성호 이익도 우리나라의 지형은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으며 가운데가 가늘고 아래쪽이 풍만하다고 하면서, 백산(白山)이 머리가 되고 대령(大嶺)이 등뼈가 되니, 마치 사람의 옆머리와 등을 구부린 것과 같으며, 대마도와 탐라는 양말과 같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옛 지도들을 보면 산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하나같이 줄기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테면, 산을 하나의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줄줄이 한 줄기로 연결해 놓고 보자는 식이다. 또한, 이들 옛 지도에 나타나 있는 산줄기는 현대지형도에서 하나의 능선으로 뚜렷이 그어지는 엄연한 산줄기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김정호(金正浩)도 이와 같은 전통기법을 계승하여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제작하였다. 대동여지도는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산줄기와 물줄기 지도로서 일종의 거대한(1:216,000 남북 6m60cm) 지형지세도인 셈이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5 맥(脈)으로 흐르는 山

우리의 옛 지도는 지형의 진실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한 듯 보인다. 나라 땅의 미약한 하나의 능선일망정 그 줄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연결되고, 또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뚜렷하고 명쾌하게 일러주고 있다. 아울러 산줄기와 어울린 물줄기도 그 시작부터 지나치는 고을과 고을을 친절하게 일러주고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그려놓았다.

지도는 옛 것이나 지금의 것이나 다양한 선과 선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선들은 선택된 선으로서 그 의미 부여가 명확하고 당시 사람들의 상식의 범주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사실에 입각한 것이며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식이 담겨진 것이어서 생활편의에 이용도가 높은 것들이다. 무엇보다 그 시대 사람들의 자연과 산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금 소개하려는 문헌 두 가지는 옛 지도에 나타난 산과 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헌으로 한국적인 산천인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다.

산수고 (山水考)

조선후기의 가장 뛰어난 지리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여암 신경준(1712~1781)의 많은 저작가운데 『산수고(山水考)』가 있다. 신경준의 문집인 『여암전서(旅庵全書)』에 실려있는 『산수고(山水考)』는 다음과 같은 글로 시작된다.

하나의 근본에서 만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은 산(山)이요, 만 가지 다른 것이 모여서 하나로 합하는 것은 물(水)이다. (우리나라) 산수(山水)는 열둘로 나타낼 수 있으니, (산은) 백두산으로부터 12산으로 나누어지며, 12산은 나뉘어 팔로(八路, 팔도)가 된다. 팔로의 여러 물은 합하여 12수가 되고 12수는 합하여 바다가 된다. 흐름과 솟음의 형세와 나누어지고 합함의 묘함을 여기에서 가히 볼 수 있다.

『산수고(山水考)』를 쓰게 된 동기와 산수(山水)의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서문에는 나라의 근간이 되는 산과 강을 분합(分合)의 원리로 파악하여 대칭적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음양의 구조로 이해하였던 저자의 생각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조선의 주요 산과 하천을 각각 12개로 파악한 점도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자연관과 우주관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연의 운행을 보면 1년은 열 두 달로 완결되며, 우주 만물에는 양과 음이 있다. 우리나라의 산천도 일반 자연법칙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 12개의 산줄기와 물줄기가 있으며, 산수의 흩어짐과 합함, 우뚝 솟아있음과 아래로 흘러내림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자신이 살고 있는 국토를 소우주로 이해하여 완결적인 존재로 파악하던 당시 사람들의 전통적인 자연관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어서 『산수고(山水考)』에는 12개의 산과 하천의 명칭이 개괄되어 있다. 12산은 삼각산, 백두산, 원산(圓山), 낭림산, 두류산(豆流山), 분수령, 금강산, 오대산, 태백산, 속리산, 육십치(六十峙), 지리산이다. 12수는 한강, 예성강, 대진강(大津江), 금강, 사호(沙湖), 섬강(蟾江), 낙동강, 용흥강(龍興江), 두만강,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이다. 산 중에는 삼각산을 물은 한강을 으뜸으로 쳤는데, 이는 수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 보인다. 산은 삼각산을 앞에 놓고 이어서 백두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산줄기를 따라 차례로 서술하였다.

서문에서는 백두산에서 조선의 산들이 시작하는 것으로 기록하였으나 실제 산의 분포를 서술할 때는 한양의 삼각산에서 시작함으로써, 저자가 백두산 중심의 사고와 수도 중심의 사고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강에 대해서는 한강을 처음에 기록한 후 예성강, 금강, 낙동강, 두만강,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 등으로 중앙에서부터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서 설명하고 있다.

『산수고』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1〉 산수고 1 : 「산경(山經)」

열 두 개의 주요 산과 상호 연결관계, 주변의 작은 산들, 산줄기의 뻗침, 군현과의 관계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그 주요 산에 포괄되는 지역, 주요 산계가 미치는 하천의 범위 즉, 수계(水系)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산경」은 산의 맥을 파악하고, 산과 산의 연결, 이에 의하여 나누어진 지역들의 범위와 사방의 경계를 하천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다. 특히, 산의 맥과 산줄기를 알기 쉽게 순서대로 정리하고,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적 범위를 포착하여 자연적 지형에 의한 지역권을 구분하여 놓아 산줄기의 체계화를 이룩하였다.

〈2〉 산수고 2 :「산위(山緯)」와 산수고 3 :「산경」

각 군현별로 군현 내에 있는 주요 산 이름을 쓰고, 그 산의 위치, 산의 갈래, 기우처(祈雨處) 등 특별히 설명할 내용을 기록하였다. 산수고 1이 군현단위를 넘어서는 산줄기의 파악과 그 산맥으로 둘러싸인 보다 커다란 지역권을 이해하도록 되어 있다면, 산수고 2와 3은 산줄기보다는 미시적 태도로 접근하여 개별 산을 파악하였다. 전국의 각 군현에 어떤 산들이 위치하고 있고, 그 산들의 연계관계는 어떠한가, 어느 산이 군현의 주산이고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쉽도록 군현 행정단위별로 적은 것이다.

〈3〉 산수고 4 : 「수경(水經)」

한강부터 시작하여 전국의 주요하천과 그 지류들의 발원지, 주요 경유처, 합류점을 기록하고, 지류들을 열거한 뒤 마지막에 하천의 분수계 즉,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의 지역적 범위를 산계와 연결시켜 기록하였다.

〈4〉 산수고 5, 6 : 「수위(水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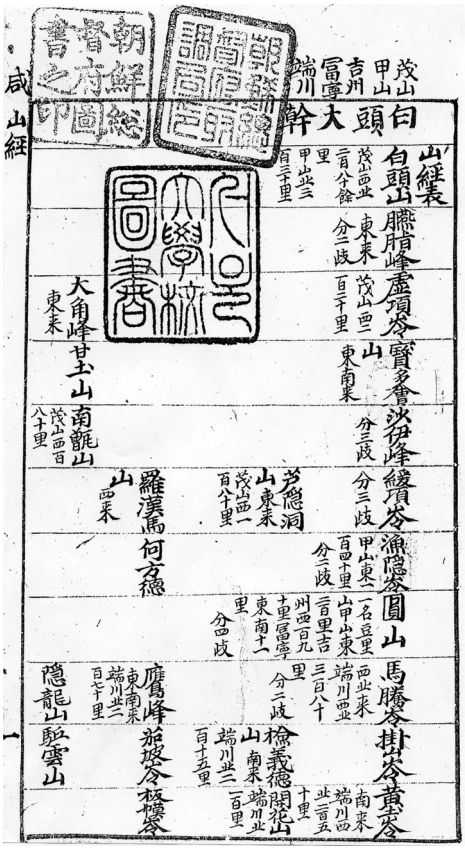
군현별로 각 지역의 하천, 연못, 나루터, 포구 등의 이름과 위치, 명사들이 남겨 놓은 관련기록 등을 수록해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강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수고』는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전국의 산과 강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조망하여 전체적인 체계를 파악하고, 촌락과 도시가 위치한 지역을 산과 강의 측면에서 정리한 책이다. 이와 같은 산천의 체계적인 파악을 전통적 지형학이라 부를 수 있으며, 이는 조선후기에 편찬된 우리나라 산천에 관한 글들의 바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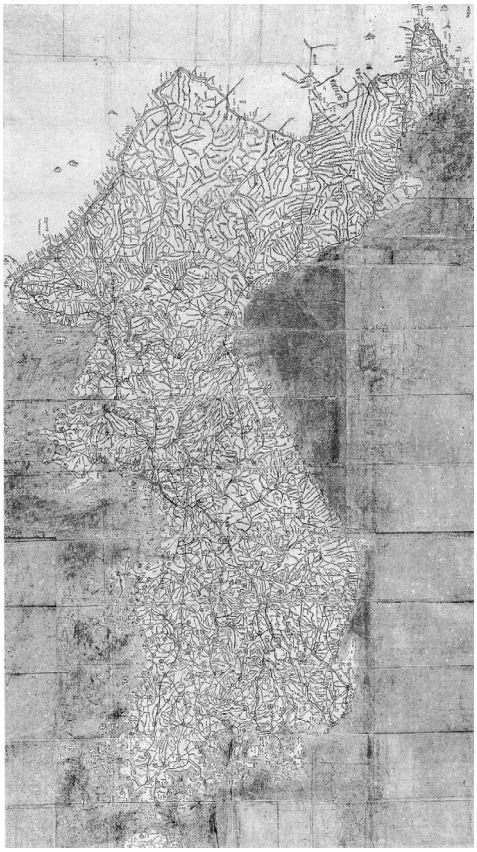
신경준이 이와 같은 거작을 개인적인 노력으로 완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왕명에 따라 『여지편람』,『동국문헌비고』와 같은 편찬 사업을 담당하면서 개인적으로 접하기 어려웠던 국가의 많은 문헌과 자료를 참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자료가 되었던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반계 유형원이 편찬한 전국 지리지인 『여지지(輿地志)』, 그리고 특히 각 군현의 읍지(邑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산수고』의 곳곳에서 읍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즉 여암이 『산수고』에서 전국에 걸친 산천의 체계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16세기 이후 각 군현 단위로 활발하게 편찬되었던 읍지를 통해 각 지방에 관한 상세한 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환경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757~1765년 사이에 편찬된 각읍 읍지를 수록한 『여지도서(輿地圖書)』55책은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신경준의 『산수고』를 통해 18세기 후반에 조선의 산과 하천을 씨줄(經)과 날줄(緯)의 개념으로 파악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산줄기와 강줄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날줄(經)로, 각 지역별 산천의 상세하고 개별적인 내용을 씨줄(緯)로 엮어 우리 국토의 지형적인 환경과 그에 의해서 형성된 단위지역을 정리한 것이다. 신경준이 우리나라 산천에 대하여 이와같이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전통적 지형학 또는 자연 지리학의 체계화로 평가할 수 있다.

『산수고』와 『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 이후에는 이와같이 산수를 함께 엮은 지리서에서 한걸음 나아가, 산을 중심한 지리서와 하천을 중심한 지리서가 독립적으로 분화되어 편찬되었다. 산을 중심으로 산줄기의 체계를 정리한 책이 『산경표(山經表)』이며, 강을 중심으로 강줄기와 그에 관련된 지역의 모습을 서술한 대표적인 책이 다산 정약용의 『대동수경』이다.



| 『산경표』의 첫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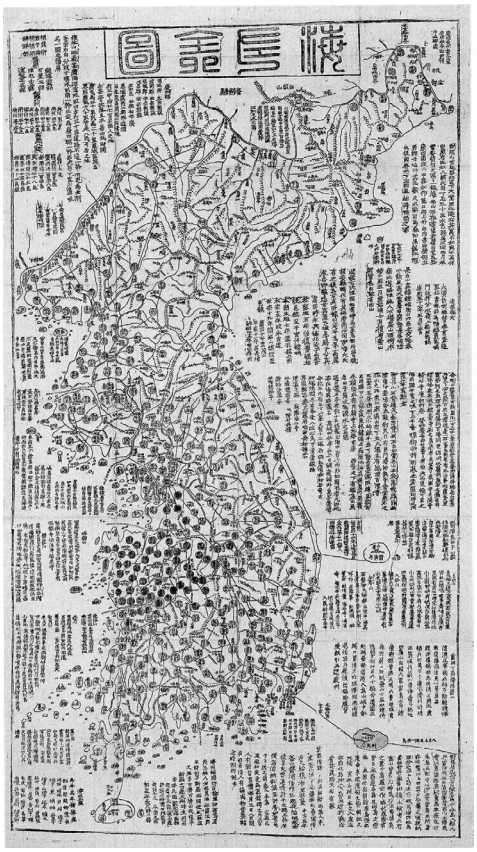
| 정상기형 동국대지도(18세기 중엽,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산경표(山經表)

『산경표(山經表)』를 펼치면 '白頭大幹(백두대간)' 이라는 단어가 장승처럼 우뚝 솟아있다. 백두대간이라는 이름이 담고있는 우리 전통의 산지인식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도 『산경표(山經表)』의 발견이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산경표(山經表)』는 고지도 연구가이자 산악인이었던 고 이우형 선생에 의해 1980년대 초 발견되었다. 대동여지도 연구에 빠져있던 고 이우형 선생은 서울 인사동 고서점에서 옛 지리서『산경표(山經表)』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땅의 인문 · 지리 개념을

| 정상기형 동국대지도(18세기 중엽,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 해좌전도 (19세기 중엽)

바꾼 대 사건이라 할 만하다. 『산경표』는 우리나라의 산줄기와 산의 갈래, 산의 위치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나타낸 지리서로 1개의 대간과 1개의 정간, 13개의 정맥으로 조선의 산줄기를 분류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0년 간 우리가 사용해 오고 있는 산맥개념과 대치되는 것으로 우리 산줄기에 대한 '재발견' 으로 여겨지고 있다.

『산경표(山經表)』의 저술시기는 1800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1795년에 개칭된 평안도의 초산(楚山), 1800년에 개칭된 함경도 이원(利原) 등의 군현명이 산경표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1800년에 바뀐 충청도의 노성(魯城)은 개칭되기 이전의 지명인 이성(尼成)으로 표시되어 있어 『산경표』의 저본이 되었던 자료들은 18세기 후반

의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산경표』를 신경준의 저술로 단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산경표』의 저자는 분명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산경표』가 신경준(1712~1781)이 편찬한 『산수고』와 『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것임은 분명하다.

『산경표』의 산경(山經)의 개념은 조선시대 이전, 아마도 고려시대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경이란 산의 날실 곧, 산들의 세로줄기를 뜻한다. 산경이란 용어는 이미 조선전기 지리지의 집성편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보인다. 강원도 통천군 「누정(樓亭)」조에 총석정(叢石亭)을 묘사하며, 고려시대의 학자 안축(安軸, 1287~1348)의 기문 속에 '사방의 산경(山經) 지지(地志)를 기록하는 이가 천하의 물건을 다 찾아서 적었지만, 아직 이런 돌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며' 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보면 이미 안축(安軸)이 생존하였던 고려시대에 산경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산경표』는 우리나라 산들의 족보인 셈이다. 책의 윗부분에 대간(大幹), 정맥(正脈) 등의 명칭을 가로로 표시하고, 그 아래에 세로로 산, 봉우리, 고개 등의 연결관계, 산들의 갈래를 기록하였다. (그림 10) 표 밖의 상단에는 그 산이 속한 군현 이름을 표시하여 행정구역상의 위치를 나타내었다. 『산리고(山里攷)』, 『기봉방역지(箕封方域誌)』, 『여지편람(輿地便覽)』 등 제목이 달리 붙은 본들도 있으나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다.

이제부터는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분류된 『산경표』의 15개 산줄기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는 조선후기의 지도들에 잘 표현되어 있기도 하다. (그림 11, 12, 13)

〈1〉 백두대간(白頭大幹)

백두산부터 원산, 함경도 단천의 황토령, 함흥의 황초령 · 설한령, 평안도 영원의 낭림산, 함경도 안변의 분수령, 강원도 회양의 철령과 금강산, 강릉의 오대산, 삼척의 태백산, 충청도 보은의 속리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대동맥으로 국토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산줄기이다.

〈2〉 장백정간(長白正幹)

장백산에서 시작하여 함경도 경성의 거문령, 회령의 차유령, 경성의 녹야현, 경흥의 백악산 · 조산을 지나 서수라곶산까지 함경도를 동서로 관통하는 산줄기이다.

〈3〉 낙남정맥(洛南正脈)

지리산 남쪽 취령부터 경상도 곤양의 소곡산, 사천의 팔음산, 남해의 무량산, 함안의 여항산, 칠원의 청룡산, 창원의 불모산을 지나 김해의 분산으로 이어지는 동향의 산줄기로, 낙동강과 남강 이남지역의 산줄기이다. 장서각 소장의 『여지편람(輿地便覽)』에는 이름이 낙남정간(洛南正幹) 으로 쓰여 있다.

〈4〉 청북정맥(淸北正脈)

백두대간의 낭림산에서 시작하여 평안도 강계의 적유령, 삭주의 온정령 · 천마산, 철산의 백운산과 서림산성, 용천의 용골산성을 지나 의주의 미곶산에 이르는 서쪽을 향한 산줄기로, 청천강 이북지역에 해당하므로 청북정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5〉 청남정맥(淸南正脈)

낭림산으로부터 평안도 영변의 묘향산, 안주의 서산, 자산의 자모산성을 거쳐 삼화의 광량산까지 이어지는 서남향의 산줄기로, 청천강 이남지역이 이에 속한다.

〈6〉 해서정맥(海西正脈)

강원도 이천(伊川)의 개연산에서 시작하여 황해도 곡산의 증격산, 수안의 언진산, 평산의 멸악산, 송화의 달마산, 강령의 장산곶까지 황해도로 뻗는 산줄기이다.

〈7〉 임진북예성남정맥(臨津北禮成南正脈)

임진강과 예성강 사이에 있는 산줄기로, 강원도 이천(伊川)의 개연산에서 시작하여 서남쪽으로 흘러 황해도 신계의 화개산, 금천의 백치와 성거산, 경기도 개성의 천마산과 부소압(송악), 풍덕(豊德)의 백룡산을 거쳐 풍덕 읍치에 이르는 산줄기이다.

〈8〉 한북정맥(漢北正脈)

백두대간의 분수령에서 시작하여 강원도 김화(金化)의 오갑산과 대성산, 경기도 포천의 운악산, 양주의 홍복산, 도봉산, 삼각산, 노고산을 거쳐 고양의 견달산, 교하의 장명산에 이르는 서남으로 뻗은 한강 북쪽의 산줄기이다.

〈9〉 낙동정맥(洛東正脈)

태백산에서 출발하여 경상도 울진의 백병산, 영해의 용두산, 청송의 주왕산, 경주의 단석산, 청도의 운문산, 언양의 가지산, 양산의 금정산, 동래의 몰운대까지 이어지는 남쪽을 향한 낙동강 동쪽의 산줄기이다.

〈10〉 한남금북정맥(漢南錦北正脈)

속리산에서 시작하여 충청도 회인의 피반령, 청주의 상당산성, 괴산의 보광산, 음성의 보현산, 죽산의 칠현산, 백운산에 이르는 산줄기이다.

〈11〉 한남정맥(漢南正脈)

경기도 죽산의 칠현산으로부터 서북쪽으로 돌아 안성의 백운산, 용인의 보개산, 인천의 소래산 등을 거쳐 김포의 (북)성산에서 멈춘 한강 남쪽 산줄기이다.

〈12〉 금북정맥(錦北正脈)

죽산의 칠현산에서 시작하여 경기도 안성의 청룡산, 충청도 공주의 쌍령, 천안의 광덕산, 청양의 사잔산, 홍주의 오서산과 월산, 덕산의 가야산, 태안의 안흥진에 이어지는 금강 북쪽의 산줄기이다.

〈13〉 금남호남정맥(錦南湖南正脈)

백두대간의 장안치에서 전라도의 남원의 수분현, 장수의 성적산, 진안의 마이산을 거쳐 주화산에 이르는 서북방향의 산줄기이다.

〈14〉 금남정맥(錦南正脈)

진안의 마이산으로부터 북쪽으로 뻗어 전라도 진안의 주화산을 거쳐, 금산의 병산과 대둔산, 충청도 공주의 계룡산, 부여의 부소산과 조룡산에 이르는 금강 남쪽의 산줄기가 이에 속한다.

〈15〉 호남정맥(湖南正脈)

진안의 마이산에서 시작하여 전주의 웅치, 정읍의 칠보산, 장성의 백암산, 담양의 금성산성, 광주의 무등산, 능주의 천운산, 장흥의 사자산, 순천의 조계산, 광양의 백운산에 이르는 'ㄴ' 자형의 산줄기이다.

지형과 산맥도
1 : 7,000,000
0
100 km
러시아
중국
차유령
백두산
2744
관모봉
2541
남포태산
2435
두류산
2309
칠보산
904
개마고원
북수백산
2522
후치령
마천령
적유령
소백산
2184
비래봉
1470
나림산
2014
묘향산
1909
황초령
용천평야
안주
박천 평야
검산령
영흥평야
서한만
평양평야
구월산
954
재령평야
연백평야
멸악산
816
금강산
1638
향로봉
1298
진부령
설악산
1708
오대산
1563
대관령
832
두타산
1353
성인봉
984
울릉도
강화도
강포평야
북한산
837
관악산
632
경기만
황해
치악산
1288
태백산
1567
충주분지
평택평야
죽령
소백산
1440
일월산
1219
예당평야
조령
속리산
1058
안동분지
안면도
계룡산
845
논산평야
추풍령
팔공산
1192
호남평야
덕유산
1614
대구분지
토함산
745
오령
팔량치
지리산
1915
김해평야
나주평야
거제도
남해도
진도
한라산
1950
제주도
산 (m)
화 산(m)
용 암 대 지
산 맥
지 구 대
(구 조 곡)

『산경표』에 나타난 산지체계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줄기의 맥락과 명칭을 체계화하여 1개의 대간과 1개의 정간, 13개의 정맥으로 분류하고 이름을 부여하고 있다. 신경준의 『산수고』나 『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에 산의 갈래와 흐름을 이야기하였으나 이처럼 일목요연하게 15개의 줄기로 나누고, 산줄기의 이름을 뚜렷하게 부각시킨 것은 아니었다.

둘째, 산맥의 체계가 하천의 수계(水系)를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이다. 산줄기의 이름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청북정맥과 청남정맥은 청천강을, 청남정맥과 해서정맥은 대동강을, 해서정맥과 임진북예성남정맥은 예성강을, 임진북예성남정맥과 한북정맥은 임진강을, 한북정맥과 한남정맥은 한강을, 금북정맥과 금남정맥은 금강을, 호남정맥은 영산강과 섬진강을 구분하는 등 주요한 하천이 기준이 되어 있다. 그러나 백두대간과 장백정간은 하나의 하천 유역권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정맥과는 달리 지금의 함경산맥 이남과 태백산맥 동측의 여러 작은 하천 유역권을 포함하며, 산줄기의 명칭도 산 이름에서 기원하였다.

실제로 산줄기의 맥을 파악하려 할 때 물줄기는 그 기준이 되어 왔다. 성호 이익도 산줄기의 맥은 물줄기에 의거해서 찾을 수 있음을 이야기 한 바 있다.

대개 백두산의 큰 줄기가 바다를 끼고 남쪽으로 달리는 사이, 철령은 북관(北關)의 좁고 험한 곳이 되었고 조령(鳥嶺)은 동남쪽의 높고 험한 곳인데, 철령 이북으로부터는 산세가 다 서쪽으로 달려 그 맥락을 찾으려면 반드시 물을 의거하여야만 그 줄기를 알 수가 있다. 두 줄기 물 사이에는 반드시 한 줄기의 산이 있는데, 이른바 청석령(靑石嶺)이라는 한 줄기는 서강과 저탄 사이에 있어 경기도와 황해도의 경계이고, 정방성(正方城)의 한 줄기는 저탄과 대동강 사이에 있어 황해도와 평안도의 경계가 되고 있다.

자연적으로 구분된 수계 또는 하천은 지역을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동시에 지역을 상호연계시켜 주는 통로의 구실을 하는 양면성이 있음은 흔히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상도의 하동과 전라도의 구례나 광양은 양 지역의 문화나 생활양식이 혼합되어 점이적인 성격을 보이고, 시장의 이용 등에서 교류가 빈번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수계가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산줄기를 산줄기만으로 분리시켜 고찰하기보다 하천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생활권 내지 지역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인문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결과라 생각된다. 이는 동양의 전통적인 자연관 즉,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키지 않고 유기적인

통합체로 보는 사고와도 결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간, 정간, 정맥 등으로 산줄기에 위계성을 부여한 점이다. 간은 줄기이고, 맥은 줄기에서 흘러나간 갈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계적 차별성은 산이나 산맥의 크기와 높이, 넓이 등 물리적인 외형상의 차이에서 기본적으로 연유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물과 현상을 계층성과 차별성을 두었던 중세적인 사유, 성리학적인 사유 구조에서 말미암은 자연의 분류체계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산과 산의 분포와 위치를 줄기 또는 맥으로 파악하여 끊어짐이 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산들이 연속되어 이어지는 현상을 산맥으로 지칭하는 것은 오늘날도 다름이 없으나, 『산경표』에 나타난 간과 맥들은 단절이 없다. 마치 혈맥이 뻗어나가 서로 통하듯이 모든 산줄기가 연결되어 있고, 산줄기와 산줄기의 결절점에 주요 산이 위치하고 있다.

현재의 산맥체계는 지질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산맥 사이의 연결관계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에 따라 개별 산맥들이 연속되어 있지 않고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북쪽과 남쪽의 지질구조가 달라 남북한의 산맥들은 연속되지 않고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내포되어 있다. 맥으로 연결된 땅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며, 크게 보면 하나의 뿌리를 가진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산맥분류체계는 한반도를 하나의 공동체적인 뗄 수 없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질적인 기원과 성격을 가진 개체들의 집합으로 국토를 바라보도록 되어 있다.

다섯째, 백두산이 국토의 중심 또는 출발점으로 인식되어 있는 점이다. 전통적인 국토인식체계에서는 국왕이 거주하는 수도를 국토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앞서 살펴 본 신경준의 『산수고』에서도 백두산을 중시하면서도 한양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산의 줄기를 중심으로 본 『산경표』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산지인식을 체계화하고 정당화하는 논리적 작업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산을 물줄기처럼 끊어지지 않는 맥으로 보았다. 또 산과 강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산은 물을 낳고, 물은 산을 가르지 않는다고 여겼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산줄기를 인식하는 기본 개념이었고, 이것을 체계화한 것이 바로 백두대간이다.

6 빼앗긴 산줄기 100년

앞에서 확인하였듯이 우리에게는 우리 고유의 지리학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이 『산경표(山經表)』에 나타나 있는 대간과 정맥이다. 우리 선조들은 산과 강을 하나의 유기적인 자연구조로 보고 그 사이에 얽힌 원리를 찾는데, 지리학의 근간을 두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즉, 약 1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배워오고 있는 '산맥(山脈)' 이라는 용어는 일본인 지질학자인 고토분지로에 의해 태어났다. 일본은 1880년대부터 조선에 대한 지질 및 광상(鑛床) 조사를 빈번하고 치밀하게 실시하였으며, 1890년대부터 전문적인 지질학자와 광산기술자 등을 동원하여 지질탐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지형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던 것이다. 고토분지로는 조선의 지질을 연구하여 『한반도의 지질구조도』라는 것을 발표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줄기 개념인 '백두대간' 은 사라지고, '태백산맥' 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다.

고토분지로가 우리나라 땅을 조사한 것은 1900년 및 1902년 두 차례에 걸친 14개월 동안이었다. 한 나라의 지질구조를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그만한 기간에 완전하게 조사하였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3년에 발표된 한 개인의 이 지질학적 연구성과는 향후 우리나라 지리학의 기초로 자리잡아 『산경표(山經表)』를 대신하여 지리교과서에 들어앉게 된 것이다.

『산경표』의 산맥 분류 체계

현행 산맥 분류 체계

| 산경표의 산맥 분류 체계와 현행 산맥 분류 체계 비교

위의 우측 지도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산맥분류체계이다. 전통적인 산맥분류체계인 〈그림 14〉의 좌측지도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점이 드러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경표

① 땅 위에 실존하는 산과 강에 기초하여 산줄기를 그렸다
② 따라서 산줄기는 산에서 산으로만 이어지고
③ 실제 지형과 일치하며
④ 지리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선이다

산맥지형도

① 땅 속의 지질구조선에 근거하여 땅 위의 산들을 분류하였다
② 따라서 산맥의 선은 도중에 강에 의해 여러 차례 끊기고
③ 실제 지형과 일치하지 않으며
④ 인위적으로 가공된, 지질학적인 선이다

다시말해 고토분지로의 연구는 분명 지질학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산맥분류체계는 조선후기의 전통적 자연인식체계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 첫째가 땅위의 모습이 기준이 아니라 땅속의 지질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체계화한 점에서 시작된다. 땅위에서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생활기반인 산과 하천의 모습이 제외된 것이다. 또 하나는 원산과 강화를 잇는 지질구조선(地質構造線)을 경계로 남북이 크게 구분되어 남과 북이 이질적인 단위로 나누어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던 백두대간이 마천령산맥 함경산맥의 일부 낭림산맥 태백산맥으로 조각나고, 민족의 성산이었던 백두산은 아무런 중요한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뭇 산 중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고토분지로의 산맥체계에는 하천과 같은 수계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산수를 함께 고려하였던 『산수고』는 제외하더라도, 산줄기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류한 『산경표』의 내용과 비교해 보아도 그 차이점은 분명히 드러난다. 『산경표』의 산맥체계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산맥만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수계가 포함된 것이었고 오히려 수계가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형을 이해할 때 그 땅 위에서 살고 있는 인간을 포함시켰는가, 아닌가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땅을 바라보는 사고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을 배제한 채 땅속의 지질을 기준으로 태어난 새 산맥체계는 우리 전통의 자연인식을 배신하며, 전통 산줄기를 빼앗아간 행위이다.

일본인에 의해 성립된 산맥체계에 대한 반발과 그를 시정하기 위한 계몽적 노력은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민간적 차원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 1910년에 설립된 조선광문회는 빼앗긴 국토와 역사의 줄기를 되찾으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설립되었다. 조선 구

래의 문헌도서 중 중대하고 긴요한 자료를 수집, 편찬, 개간하여 귀중한 도서를 보존, 전포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조선광문회는 『택리지』, 『도리표』에 이어서 지리서로서 세 번째로 1913년 『산경표(山經表)』를 간행하였다. 이 영인본의 책머리에 실린 서문 겸 해제에는 이 책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윽히 생각해 보건대 우리나라의 지지는 산을 논한 것이 많으나 허물을 들추어 보면 산란하고 계통이 없다. 『여지고』는 신경준이 편찬한 것인데, 그 「산경」에 산의 줄기와 갈래의 내력을 바르게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높이 솟아 큰 산이 되고, 옆으로 달려가 고개가 되고, 산이 굽이돌아 안아서 읍치를 만든 것 등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음이 없으니, 진실로 산의 근원을 알려주는 조종이 된다. 『산경표』는 「산경」을 강(綱)으로 삼고 옆에 이수(里數)를 부기한 것을 목(目)으로 삼아 나열하여 놓았으니, 모든 구역의 지경과 경계가 마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듯 분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바탕으로 삼은 「산경」의 금상첨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로 지리가(地理家)의 나침반이 될 만하다 하겠다.

일본인이 만들어낸 새 산맥분류체계를 따라야했던 일제강점기에도 『산경표』를 통해 우리 전통산지인식을 이어가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새 산맥체계는 식민지 통치기간 동안에 확고하게 자리잡았고, 조선의 원형적인 자연인식체계는 오랜 기간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